



휴대용 책상에 지능형 의자 음성인식장치 PC로 집무

오늘날 화이트칼라들은 규격화된 좁은 칸막이 방에서 형광등의 흐린 빛을 받으며 동료들의 손톱 깎는 소리나 스피커폰에다 지껄여대는 소리도 감수한 채 꼭 참고 일해야 한다.

30여년 전 가구메이커 허만 밀러가 이런 조립형 방을 구상할 때만 해도 종래의 딱딱한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창의력을 부추기며 작업공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모든것이 무선시스템

오늘의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의 사무실은 '호텔' 형으로 바뀌어 종업원들을 마치 찾아오는 방랑객처럼 다루면서 수위가 이들에게 전화와 휴대용 책상을 배정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재택근무자들은 랩톱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무실을 차리고 일할 수 있다. 앞으로 25년간 화이트칼라들의 사무실은 과연 어떻게 변천할까?

2025년경에는 오늘의 어두컴컴한 복도의 미로와 흡수속 같은 사무실은 신

경제(新經濟)처럼 대중적인 어필보다는 개인적인 주문형을 강조하는 광범위한 사무실 구조로 대체된다. 종업원들은 이 새로운 역동적인 작업환경에서 자기들의 작업공간을 개성화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의 필요에 어울리게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카네기멜론대학의 건축학교수 폴커 하트콕트는 앞으로는 "빌딩을 어떤 기술 또는 조직적인 계획을 연출할 수 있는 무대장치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의 패러다이스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미래의 사무실에서는 오늘날 사무실마다 누비고 다니는 얇고 설킨 케이블의 모습은 사라지고 공중을 통해 소리, 데이터, 비디오를 전송하는 무선시스템으로 대체된다. 모든 장치의 표면을 덮은 지능형 소재가 하루는 나무 그리고 다음 날은 금속의 감촉을 제공한다. 지능형 의자가 앉는 사람의 자세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일하는 동안 등의 필요한 곳을 문질러주기도 한다. 내장된 시스템과 생물촉정감응기술을 통해 휴대폰과 PDA(휴대단말기)에 이르는 모든 하

드웨어가 사용자의 정체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장치와 통신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의 화이트칼라는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보안이 잘 된 지능문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서 데스크탑의 가상의 조수가 그 날의 스케줄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는다. 사무실의 온도와 조명은 자동적으로 방 주인의 취향에 맞추어 조절된다. 신화 같은 '종이 없는 사무실'은 실현되지 않을지는 모르나 침단의 다시 쓸 수 있는 양피지(羊皮紙) 비슷한 종이 덕에 종래의 종이들로 뒤범벅이 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의 사무실에서는 더 이상 타자(打字)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교한 음성인식장치가 PC에게 그런 일을 지시한다.

21세기의 화이트칼라는 넓고 탁 트인 공용구역에 친 신축자재의 지붕을 가진 천막 같은 구조물 속에서 일한다. 기동에서 뻗어나간 스크린은 이용자의 무드와 프라이버시의 필요에 따라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바뀔 수 있다. 이웃 동료에게서 나오는 소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음향기술이 소음

2세기의 화이트칼라는 아침에 출근하면 보안이 잘 된 지능형 문으로 걸어 들어와서
 데스크탑의 가상조수가 그날의 스케줄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는다.
 그리고 지능형 의자에 앉아서 그날의 할 일을 음성인식장치 PC로 챙긴다.
 평판스크린으로 된 벽이 영상과 데이터를 보면서 ...
 멀리 있는 동료들과 얘기하려면 실물 그대로 입체 비디오 회의시스템에 불러낸다.

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창문이 있는 사무실을 갖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다. 평판스크린으로 된 벽은 모든 방향에서 오는 영상과 데이터를 보여 주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가상의 광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 다른 대륙에 있는 동료들과 담소하려면 실물 그대로 입체 비디오회의 시스템에 불

러내면 된다.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이 동식 작업장을 접어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

회의실도 '정원형' '카페형'

미래의 사무실의 공용부문으로서의 종래의 인상적인 마호가니 테이블로

장식한 회의실 대신 옥내 정원, 놀이터 그리고 카페에서 명상용의 굴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를 마련한다. 2025년에는 사무실의 감소한 간이취사장까지 유선으로 연결되어 먼 곳의 동료와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미국 제록스사의 팔로알토연구센터의 존 실리소장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화의 무대를 벽을 덮은 디지털 게시판까지 확장한 뒤 구상한 것을 곧 전자우편을 통해 컴퓨터까지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사는 부하들의 사소한 담소까지 탐지함으로써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는 빠른 걸음으로 침식된다. 중업원의 전자우편을 읽는 것은 물론 그들의 웹서핑의 추적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은 인간자본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2050년까지는 상사들이 목욕탕에서 자동판매기에 이르기까지 부하의 거처를 언제나 알 수 있게 전자인식표를 착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를 극장에서 보내고 싶은 교활한 친구들은 가짜인식표를 만들어 추적을 따돌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㉞

〈春堂人〉



허만 밀러의 미래의 오피스시스템 특징은 기둥에서 튀어 나온 반투명 스크린이 열린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